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몸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속량된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기에,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셨다.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은 1964년 11월 21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에게 한 훈화에서 이 칭호를 장엄하게 선언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이 이름으로 이제부터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이 하느님의 어머니께 더 많은 영예를" 드리도록 정하였다.

아래의 본문 외에는, III권 성모 공통, 1636.

독서 기도

찬미가

예수의 복되신 동정성모여
성자의 복되신 따님이시여
누리에 드높이 뛰어나시나
지극히 겸손한 분이시어라

높고도 영원한 계획에따라
주님께 간택된 성모마리아
우리네 인생의 자랑이시며
더없이 지극한 영예시로다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스스로 기묘히 당신께오사
당신의 몸안에 거처하시려

당신을 귀하게 만드셨도다

동정녀 몸안에 불꽃이일어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니
거기서 열받아 싹이터나와
지상에 천상꽃 피어오르네

교회의 어머니 동정마리아
거룩한 소명을 받으셨으니
성부와 성자께 영광드리세
위로자 성령께 영광드리세.

제2독서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3회기를 마치며 한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의 훈화에서

(1964년 11월 21일: AAS 56[1964], 1015-1016)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와 교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긴밀한 관계를 숙고한 뒤, 복되신 동정녀의 영광과 우리들의 위안을 위하여 본인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곧 신자들이든 목자들이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부르는 온 그리스도교 백성의 어머니로 선언합니다. 또한 지극히 아름다운 이 이름으로 이제부터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이 하느님의 어머니께 더 많은 영예를 드리며 기도하도록 정합니다.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이 칭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심에 매우 친숙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신자들과 보편 교회는 마리아를 그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이름은 마리

아께서 강생하신 하느님 말씀의 어머니로서 부여받으신 존엄 그 자체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으므로 마리아 신심과 진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유일무이한 관계를 지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인간 구원 활동 안에 현존하시는 그 원인이 신적인 모성이듯, 마리아와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도 그렇게 똑같이 신적인 모성에서 흘러나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동정녀 태중에서 인성을 받아들이시는 즉시 교회인 당신의 신비체를 그 머리이신 당신과 결합시키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또한 모든 신자들과 목자들의 어머니로, 곧 교회의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비록 부당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마음과 자녀들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우리가 눈을 들어 성모님을 우러러보는 까닭이 있습니다. 일찍이 천상 은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열정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 임무를 수행하려고 분발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 어머니의 도우심을 가져다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이 천상 어머니와 인류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믿는 이러한 신뢰를 계속 쌓아 올리며 굳건히 하도록 권유합니다. 마리아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므로, 강생하신 말씀의 존엄하신 어머니께서 하느님에게서 가져다주시는 매우 풍요롭고 놀라운 은총이 쌓일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분은 아담의 딸이시며,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을 지니신 우리 자매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미래 공로에 앞서 하느님께 은총을 받아 참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그분은 당신 스스로 완전한 믿음의 표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그분을 두고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그분은 그리스도 제자의 완전한 모습

을 보여 주시고 모든 덕행의 거울이 되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저 참된 행복을 당신의 삶으로 완전히 재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편 교회는 다양한 생활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동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를 가장 완전한 모범으로 삼아야 하고, 그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아야 합니다.

응송 루카 1,35 참조

◎ 성령이 마리아께 내려오시고 *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분을 덮으리라.

◯ 이제 그 아드님의 수난을 함께 받으시고, 구원받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네.

◎ * 지극히.

마침 기도, 아침 기도를 보라.

아침 기도

찬미가

하늘의 빛나는 동정녀시며
찬란한 사랑의 별이시로다
죽을몸 우리의 희망이시며
넘치는 생명의 샘이시로다

지극히 높으신 여왕이시여
신뢰로 청하는 우리도우사
당신을 통하여 안전한길로
성자의 앞으로 인도하소서

당신께 청하는 사람에게만
따스한 도움을 주실뿐이랴

못다한 생각이 미치기전에
기꺼이 그소망 들어주시네

당신의 자애는 위대하시고
당신의 관용도 한이없으니
조물이 가질수 있는모든선
온전히 한몸에 지니시었네

교회의 어머니 동정마리아
거룩한 소명을 받으셨으니
성부와 성자께 영광드리세
위로자 성령께 영광드리세.

즈가리야의 노래, 후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네.

마침 기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아드님을 낳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저희에게 어머니로 주셨으니, 사랑이 넘치는 마리아의 협력으로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하느님의 교회가 자녀들의 성덕으로 기뻐하며 모든 백성을 품 안에 모으게 하소서. 성부와.

저녁 기도

찬미가

교회의 어머니 동정마리아
영광을 받으신 영원하신문
성부와 성자께 나아가는날
저희의 피난처 되어주소서

영광이 가득한 천주의성모
성부의 아드님 낳아주셨네
저희가 기리는 모든사람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다의 별이신 찬란한광채
임금님 혈통의 거룩한모친
성부와 성자께 간청하시어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인자한 동정녀 사랑의성모
지극히 복되신 동정마리아
당신께 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쓸개마시며
십자가 못박혀 상처입으신
성자께 기도를 전해주소서

지고한 임금님 자애의모후
천상의 빛이요 문이시오니
눈물로 청하는 간절한기도
가련한 저희를 굽어보소서

교회의 어머니 동정마리아
거룩한 소명을 받으셨으니
성부와 성자께 영광드리세
위로자 성령께 영광드리세.

또는, 바다의 별이여 기뻐하소서

성모의 노래, 후렴 주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마침 기도, 아침 기도를 보라.